

“漢譯경전 언어 연구 불교학 기초 작업”

쭈칭쯔 북경대 교수, ‘불교와 언어’ 좌담회서



“기원 전·후 중국으로 불교가 전래된 이후 당나라 때까지 무려 1천년에 걸쳐 범어로 된 불경을 한자로 옮기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한역 불경에 쓰인 한자에는 방언이나 구어는 물론 원래 한자에는 없는 어휘와 문법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습니다. 이른바 ‘불교 혼합 중국어’라 불리는 이 시기 중국어에 대한 연구는 불교학 연구의 기초 작업입니다.”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이 분야에 대한 국내 학계의 관심을 촉구했다.

쭈칭쯔 교수는 불교 혼합 중국어 연구에 대한 필요성은 불경 번역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알면 저절로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범어 불경을 중국어로 옮기는 과정에 이르는 남긴 역자는 100명이 넘지만 대다수가 서역의 고승들이고 순수한 중국인은 10명도 채 되지 않는다. 당연히 역자의 중국어는 대부분 외국어식이며 방언 색채를 띠고 있을 수밖에 없다.”

쭈칭쯔 교수는 “범어와 중국어는 언어 구조와 유형에서 차이가 있어 중국어 고유 언어 성분만을 사용해서는 원전의 내용을 정확하게 번역해 낼 수 없었다. 어휘나 문법 등 원전의 언어 성분이 대량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번역자인 외국 고승들의 모국어에서 영향 받은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 학계에서는 1980년대부터 불교 문헌의 언어가 일반적인 고대 한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1990년대 들어 독립적인 연구 분야로 정착돼 북경대학교의 경우 ‘불교 중국어 연구’라는 대학원 과정이 개설돼 있다.

선어록 연구자인 송인성 박사는 ‘<조당집> 등 당·송대 선종 어록 역시 당·송 시기의 구어나 방언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도 국내 학계에서 이 분야 연구자는 손으로 짚을 정도’라며 “불교학자와 중국어 전문가가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형진 기자 jinny@buddhania.com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서초구에 최근 문을 연 선어록연구소(소장 송인성 박사)에서는 중국 베이징(北京)대학 쭈칭쯔(朱慶之, 47·사진) 교수를 초청해 ‘불교와 언어’를 주제로 좌담회가 열렸다. 1990년 중국 쓰촨(四川)대학에서 ‘불전과 중국시대(서한시대-당초) 중국어 어휘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쭈칭쯔 교수는 한역 불경 언어 연구의 권위자. 쭈칭쯔 교수는 “지난 해 11월 대만에서 열린 ‘한문불전언어학 국제학술연구회’에 중국, 대만 등지의 학자 40여 명이 주제 발표를 했지만 한국에서는

범어를 한자로 옮길때 방언·구어 사용

“불교학자·중국어 전문가 공동연구 필요”



정병모 교수가 쓰는 불교 미술의 美

불교공예(3)

지붕끝에 핀 화려한 꽃

천년이라는 긴 역사를 간직한 신라시대에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문화유산이 적지 않게 창출되었다. 부드러운 곡선 속에 강렬한 직선을 내보인 신라금관, 건축과 조각의 절묘한 조화를 이룬 석굴암, 아름다운 자태에 웅혼한 소리가 조화로운 성덕대왕신종, 준수한 비례와 다양한 조형세계를 펼쳐 보인 통일신라 석탑. 여기에 하나를 더 보태라면 나는 주저 없이 신라기와의 꼽는다. 2000년 8월에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기념하여 기획한 신라와 전전은 신라기와의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문화유산임을 만방에 알리는 자리였다.

작은 한반도가 그나마 세 나라로 쪼개져 자웅을 겨

세함에 다다르게 되었다. 불국사 보살화문수막새 그 섬세함의 극치라 하겠다. 이 수막새에 새겨진 무늬를 보면, 가운데 지방에 점점이 튀어나온 연씨를 제외하고는 주위의 보살화문은 언뜻 무엇을 표현하였는지 분간하기 힘들만큼 흐드러지게 나타내었다. 미세한 떨림마저 놓치지 않고 잡아내는 치밀한 표현력이 화려함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당나라의 기와도 이만큼 화려하고 섬세한 조형세계를 펼치지 못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유창종 기증 와전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 전시회에 통일신라를 대표할 만한 수막새가 출품되어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다. 바로 보살문수막새가 그것이다. 보살상이 새겨진

불국사 보살화문 수막새 섬세함 극치 결과부좌 튼 보살표현 화려하고 치밀



◇ 보살문수막새 (유창종 기증, 통일신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사진 왼쪽)와 보살화문수막새 (불국사 출토, 통일신라, 국립경주박물관 소장·사진 오른쪽)

투었던 삼국시대. 그 시대에는 기와까지도 서로 그 개성을 다투었다. 고구려 기와는 단정하면서 엄격한 조형 가운데 역강한 힘을 표출하고 있다. 이는 한나라 기와의 단정한 구획과 북조의 강한 미의식을 함께 갖추고 있는 것이다. 백제 기와에는 부드럽고 온화한 곡선미가 전체를 감싸고 있다. 이러한 양식에는 남조의 기와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렇다면 신라의 기와에서는 어떠한 특징을 보였는가? 초기에는 고구려 및 백제 기와의 형식에 많은 신세를 졌지만 이내 이들 신라 고유의 미감으로 각색하였다. 고구려의 역강함과 백제의 부드러움에 신라의 질박함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라의 전통을 계승한 통일신라시대에는 다시 당나라 기와의 자극을 받으면서 문양의 종류가 증가하고 표현방식은 매우 화려함과 섬

수막새는 지금까지 조각이 몇 점 알려져 있지만, 이처럼 완형을 유지한 경우는 없었다. 수막새의 중앙에는 도드라지게 새겨진 보살이 양손을 들고 결과부좌를 들고 앉아 있다. 이 보살상의 주위에는 한단 내려앉은 가운데 8열의 보살화문이 빙 둘러 쳐져 있다. 그리고 높지 않게 솟은 외곽의 테두리에는 꽃무늬가 연이어 새겨져 있다. 탄력적이고 관능적인 보살의 몸매에서는 석굴암으로 대표되는 통일신라 조각의 절정을 감지할 수 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은 지붕 끝까지 그토록 섬세하게 장엄하였던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구석구석 세부에까지 정성이 미치는 신라인의 문화적 역량에 놀랄 따름이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교수

국내 첫 고려왕실 영당터 발견

충주 송선사터서 고려 석축 원형도

요즘 TV 사극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고려 4대 임금 광종은 어머니인 신명순성왕후를 위해 모후의 고향인 충주에 송선사를 창건했다고 <고려사>는 전한다. 송선사터로 알려진 충북 충주시 신니면 문송리 일대에 대한 발굴조사가 거듭될수록 흥미로운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충청대박물관(관장 장준식)은 지난해 12월 30일 3차 발굴조사(2002.11.4-) 결과를 공개하는 현장설명회를 갖고 “지난 2차 발굴 때 국내 최초로 금동으로 만든 연봉 장식이 발견된 건물터는 신명순성왕후의 영당으로 추정된다”며 “남한에서 고려 왕실의 영당터가 발굴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금당터 뒤편에서 발견된 영당터는 처음 강당터

일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측대가 39m에 달하는 데 비해 그 위에 세워진 건물이 측면 1칸(정면 3칸)으로 강당으로 쓰이면 규모가 작은 점 △지붕에 금동장식을 쓰고 타일처럼 벽에다 벽돌을 붙인 점 △어머니를 위해 짚을 세웠다는 <고려사> 기록 등을 볼 때 영당터로 추정된다고 박물관측은 설명했다.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또 고려시대 석축 방식이 최초로 밝혀져 관심을 모았다. 사찰 중심구역 남쪽 끝에 조성한 석축은 장대석만 쌓는 일반적 방식과는 달리 장대석 뒤편에 자연석을 5열로 쌓아 뒷채움을 하고 앞면을 장대석으로 마무리한 것이 특징.



◇충주 송선사터에서 출토된 귀면와와 연봉형 장식.

장준식 관장은 “송선사는 고려 왕실이 관련된 최초의 유적으로 출토 유물 또한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어 역사적, 미술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한편 3차례 발굴조사 결과 송선사는 고려초 창건돼 18세기까지 법당이 이어졌으며 최소한 3차례 걸쳐 가람배치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노사갈등 해법 연기적 세계관

‘깨달음의 노사관’은 극한 대립 피할 사상적 힘

유승무 교수 주장

서울시의 지하철 막차 1시간 연장 운행을 둘러싸고 서울지하철공사 노사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 문화에 맞는 새로운 노사관계 모델은 불교의 연기적 세계관이라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끈다.

중앙승가대 유승무 교수(포교사회학과·사진)는

최근 발간된 <중앙승가대 교수 논문집> 제9집에 발표한 ‘불교의 노사관과 불교적 노사 갈등 해법’에서 “서구에서 탄생한 기존의 노사 갈등 이론을 문화적 배경이 다른 우리 사회에 적용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서구의 노사관계는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계약관계와 노동조합과 경영자 사이의 단체협상관계를 핵심으로 한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의 노사 갈등은 다양한 당사자가 개입돼 있어 노사간의

정치·경제적 이해에만 국한할 수 없다는 게 유 교수의 생각이다.

유 교수는 “인간의 연기성에 대한 자각을 기초로 한 깨달음의 노사관계는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상극의 논리가 아니라 생명권이나 생명권, 공공성과 공익성, 전체 사회적 책임 등 모든 존재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상생의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며 “깨달음의 노사관이야말로 노사 갈등의 극한 대립을 피할 수 있는 사상적 힘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교수는 “불교적 세계관에 따르면 노사 갈등의 해법은 이해 당사자 스스로가 연기적 세계관을 자각하는 길밖에 없는데, 자칫 모든 인간사를 마음의 문제로 환원함으로써 사회 개념이 성숙할 수 있는 여지를 좁혀 놓는 결과를 낳는다는 한계 역시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